

# 보살님께 공양 올린 청년들 '화제'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9월 28~29일 보살님 수련회

9월 28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공양간에 앞치마를 두른 청년들이 공양 준비에 분주하다. 요리에 서툰 청년들이 공양간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청년회 회원들이 9월 28일~29일 보살님 수련회의 뒷바라지를 도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청년회 회원들이 9월 28일~29일 1박 2일 동안 열린 보살님 수련회의 공양 뒷바라지를 도맡아 눈길을 끌었다.

#### 어린이·청년 등 보살 수련회에

#### 회비 모아 1박 2일 공양 지원

청년회 2부 최정민 회장은 "매 수련회마다 보살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셨는지 그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며 "이렇게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52명의 보살들은 어린 도반들의 뒷바라지 덕에 인생 최고의 휴가를 누리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남홍 보살은 "어린 사람들이 어찌나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마음공부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이 공

양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원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연신 칭찬과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다.

"너 나 하나라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28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첫날 다도, 선법가 테라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어린이, 청년들이 수련회 뒷바라지를 맡아 해주니 신도님들 한분 한분의 화합에 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한걸음 걷는 수행자가 되었다. 너 나 하나라네 주제 아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사한 수련회"였다고 신도들의 화합된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삼광사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식

### 2003년 기공식 10년 불사 완성

부산 삼광사가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법요식'을 개최했다. 삼광사 극락전은 2003년 4월 10일 기공식을 가진 후 10여 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10월 4일 삼광사 극락전과 대웅보전 앞 마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를 증명대법주로 모시고 총무원장 도정 스님, 감사위원장 춘광 스님, 종회 의장 문덕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국회의원 이현승 삼광사 신도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이윤희 부산 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함께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법화도량인 삼광사가 아미타 48대원 성취를 증명하는 극락전 낙성식을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천태묘법이 충만한 도량이 되었다"며 감회를 전했다.

삼광사 극락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에 다포양식의 사모지붕을 한 한국전통형식의 정사각형 전각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860여 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과 2층은 객사, 지상 1층과 2층은 복층구조로 가운데 불단을 놓고 단집을



부산 삼광사가 10월 4일 '극락전 불상봉안 점안 및 낙성법요식'을 개최했다.

감회를 전했다.

삼광사 극락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에 다포양식의 사모지붕을 한 한국전통형식의 정사각형 전각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860여 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과 2층은 객사, 지상 1층과 2층은 복층구조로 가운데 불단을 놓고 단집을

달아 사방에 2만 5천기에 달하는 위패를 모실 수 있다. 3층은 법당 중심부에 4면으로 불단을 놓고 아미타 부처님을 주존불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이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위에 단집을 장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대원불교조계종 세계평화 기원 수록대재

### 9월 29일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은 9월 29일 세계평화와 국제안민을 기원하는 수록대재를 사천시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과 총무원장 해오 스님, 원로회장 무공 스님 및 지역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0 명이 참여했다.



(사)대원불교조계종 9월 29일 수록대재

행사는 발원문 낭독과 원로회장 무공 스님 대회사 등이 이어졌다. 이날 증명 대법주이자 종정인 청봉 스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풀면 그 고마움을 평생 잊어 버릴 수가 없듯이 불쌍한 고혼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천도해 주면 더욱 크나큰 공덕이 생긴다"고 수록대재를 여는 의미를 전했다.

대원불교조계종은 이날 수록대재에서 모인 보시금 금일봉과 쌀 80포대를 삼천포 라이온스 클럽 박종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돌쌓기 하나도 전통미가 우선

조경석쌓기라는 말이 있다. 말인즉슨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사면에 돌을 놓거나 세우면서 들쭉날쭉 쌓아올리고 돌과 돌 사이의 빈 공간에 낮은 키의 꽃나무나 상록성관목을 심어 치장하는 돌쌓기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의 조경계에서는 이러한 돌쌓기방법을 일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 어디를 가 봐도 이러한 돌쌓기 방법으로 시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쌓기방법의 시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국의 경우 못의 호안을 축조할 때 크고 작은 돌과 납작하거나 길쭉한 돌을 조합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석조(石組)라고 하여 돌을 조합해서 경관적

으로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조경석쌓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대석이나 사괴석과 같이 잘 다듬은 돌이나 못생긴 막돌을 첩첩이 겹쳐서 쌓아올리는 돌쌓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대석은 주로 궁궐이나 왕실의 원찰에서 사용하는 재료였고, 벼모난 사괴석은 사대부 가와 같이 비교적 신분이 높은 집에서 사용하였으며, 막돌은 서민들의 집처럼 평범한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주변에 큰 돌이 많았던 사찰의 경우에는 덩치가 큰 자연석을 쌓아올리기도 하였는데, 한 예가 바로 부석사 석단이다. 이처럼 공간에 따라서 재료는 다를 수 있었지만 쌓

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첩석쌓기였던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가보면 예의 조경석쌓기 방법으로 사면을 처리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스님들이 조경에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소위 조경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돌쌓기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사찰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일반사찰의 경우에도 조경석쌓기와 같이 국적도 없는 돌쌓기방법으로 석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찰의 경관이라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적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쉽게 시공을 할 수 있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돌쌓기 하나에서도 한국의 전통미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국사찰이 면면히 계승해온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현재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석쌓기는 전통사찰에서 계승되어온 돌쌓기방법이 아니다. 사진은 경기도 가사찰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국 서울. 의정부

##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